

# 2천년 세월의 봉인을 뜯고나온 '지하군단'

위에 난 지음 《진시황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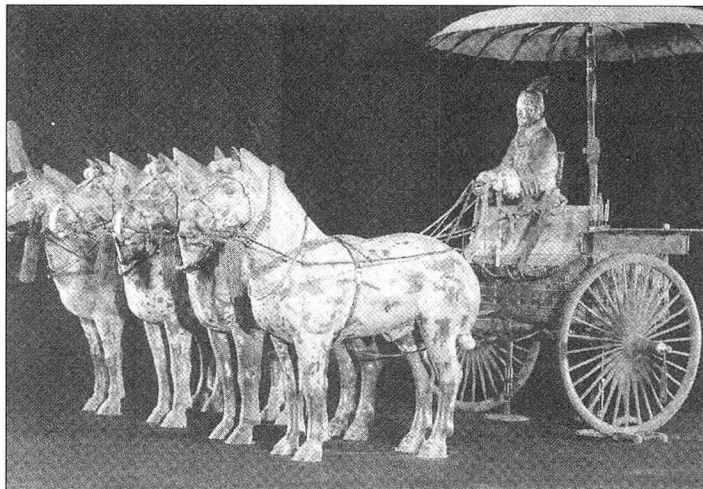
아득한 과거의 시공간이 문득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역사'는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중국 고대사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은 그 웅장한 규모와 생생한 유물로 전세계인에게 2천년전 중국 땅에서 펼쳐진 전설을 역사로 우뚝 서게 했다. 위에 난의 《진시황릉》(유소영 옮김)은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진행됐던 진시황릉 지하분묘 발굴과정과 유물에 얽힌 고사를 각각 씨줄과 날줄로 삼아 중국역사의 너른 천을 지어냈다.

## 지하에 매복한 거대군진이 보내는 첫 신호

1974년 봄 중국 서부 진천에는 극심한 가뭄에 이제 막 옮겨 심은 보리묘종이 대지에 고꾸라져 물을 갈구하고 있었다. 모래와 자갈투성이 황폐한 땅에서 한줄기 수맥을 기대하며 농꾼들은 땅을 파내려간다. 그들의 손에 쥔 곡괭이를 내리친 순간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방대한 지하군단이 묻혀 있는 진시황릉 병마용의 첫 파편이 걸려온다. 머리부분과 부러진 팔 다리조각들, 사람 모양의 도기인형. 흙을 파던 구덩이 속에는 머리에 긴빨(무사용 상투)이 나고 굳게 다문 입 위로 팔자 수염을 기르고 눈을 부릅뜬 도기인형이 놓여 있었고, 계속해서 녹슨 청동화살, 쇠뇌가 발견된다. 지하에 매복해 있던 거대한 군진이 2천년 뒤 인류에게 보낸 첫 신호다.

지하수 대신 출토된 여러 유물은 현 문화관에 보고됐고, 감웃임고 병기를 든 복원된 도용이 마침 그곳에 들른 신화사 기자 린안온에게 발견된다. 그는 직업적 감각과 역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하군단의 운명을 바꿀 기사 한편을 작성한다. 이 글은 곧 바로 모택동과 주은래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는 2천년 세월의 봉인을 뜯고 마침내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곧 '진시황릉 진용 고고학 발굴팀'을 구성, 그해 7월15일부터 1호 용갱의 발굴이 시작됐다. 아직 이 용갱과 진시황릉의 관계를 확정짓기 어려운 때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나타난다. 조각난 도용의 몸체 앞에 새겨 처럼 빛나는 구리 극(戟)이 발견된 것이다. 이 극의 정수리 부분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



1호 동거마. 마부의 몸집은 자신만만하며 4필의 청동마차는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 분방하다(왼쪽). 갑옷 차림의 도용들. 8천여점의 도용은 위풍당당한 장수의 풍모를 잃지 않고 있다.



있는 '삼년상방여불위조사공구(三年相邦呂不韋造寺工口, 여불위가 승상이 되고 나서 3년째에 만들었다는 뜻)'라는 명문으로 병마용갱이 진시황릉의 부장품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불위와 시황제, 두사람의 운명적 관계는 역사가 말해주는데, 이 명문은 여불위가 권력의 절정에 있던 때 진나라 청동병기 제조기술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의 것임을 뒷받침해준다.

발굴 시작 보름이 지나도 용갱의 끝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을 때 발굴현장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난다. 노인이 가리킨 용갱의 가장자리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아직도 그 일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어쨌든 1년여 작업 끝에 동서 230m, 남북 62m, 총면적 1만 4260㎡의 병사용갱이 파헤쳐졌다. 도용은 8천여점, 도마는 몇백필, 나무전차는 1백여승, 그리고 대량의 청동병기들. 위풍당당한 장수의 풍모를 잃지 않은 무사용은 오른쪽 여밈의 짧은 털옷에 허리 띠를 하고 머리를 묶고, 볼록한 상투는 머리 오른쪽 부분으로 치우쳐 있다. 다리에는 끈을 메고 발에는 네모진 입구의 가지런한 신발을 신고 있다. 근육과 각진 얼굴 날렵한 전투마의 기상도 생생하다. 선두와 후미, 주체와 보좌, 보병과 마차, 말이 교차되는 군사 배치는 너무도 변화무쌍해 약동하는 기운이 느껴진다. 전체길이 91.3cm, 너비 3.2cm의 진나라 보검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검으로 책상 위 종이뭉치를 가볍게 베어보았더니 단번에 19장의 종이가 베어졌다는 일화도 전한다. 과연 '철을 훑처럼, 돌을 가루처

럼' 자를 수 있다는 청동검이다.

1호 용갱 전시관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돼 북동쪽으로 약 20m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용갱이 발견됐다. L자형 지하건축물로 1호 용갱의 절반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궁노병·경차병·차병·기병 등으로 이뤄진 대형군진이다. 병마용갱의 기병 군진은 실물의 완전한 재현으로 기병들은 모두 180cm 이상의 키에 균형잡힌 체형과 예리한 풍모를 지니고 있다.

## 역사학자들의 논쟁도 불러일으켜

진시황 용갱의 발굴은 전문가들에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제까지 고대 기병이 안장을 사용한 것은 서한시대부터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용갱에서 안장이 조각된 도마가 출토됨으로써 역사학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또 진시황 용갱에 적지 않은 병사용들이 사지가 절단되거나 머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진흙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나,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는 토벽의 대들보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진나라가 망한 뒤 4년에 걸친 초한 전쟁에서 항우가 불을 질렀다는 설, 장례식을 위한 의식의 한 절차였다는 설, 목동의 실수로 난 화재라는 설 등이 그것인데, 세가지 모두의 문점이 있어 아직까지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1976년 3호 병마용갱이 발견되고 12호와 전혀 다른 지하 군영장막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고대 군진 지휘부로서 3호 용갱의 건축양식이나 전차와 말의 특징, 도용과 병

기의 배열은 고대 전쟁과 출전 전 의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한편 진시황 능묘의 동거마(구리로 만든 수레와 말) 발굴은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천년 세월의 무게로 형태가 일그러지긴 했지만 두 대의 동거와 여덟필의 동마, 두좌의 구리로 만든 사람, 윤기 나는 은장식과 금으로 된 물건들은 빛을 잃지 않았다. 동거를 끄는 4필의 청동마차는 체형이 크고 이마에는 빛나는 금·은 장식품이 달려 있다. 등걸고 커다랗게 뜬 눈은 앞쪽을 향하고 들창코인 콧구멍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있다. 마부의 몸집은 자신만만하며, 출발전 만반의 준비를 갖춘 태세다. 동거의 돛형 지붕엔 색깔이 선명한 도안이 그려져 있고 바퀴 축에는 방울이, 복대에는 술장식이 달려 있다. 절묘한 공예조형은 2천년의 시간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다.

진시황릉의 동거마는 일세 영웅의 성격과 정치사상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하게 만든다. 폭군으로만 알려졌던 진시황의 진면목이 유물발굴에 얽힌 저자의 명쾌한 해석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

풍진의 세월에 파묻혀 있던 고대의 시간 속에서 세계 4대 문명국의 하나인 중국의 심연한 고대문화의 빛을 바라보는 일은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문명의 위대한 흔적을 실감케 한다. 우리는 과거 미지의 세계를 보며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 김지원 기자